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

바울과 예수님

신약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과 바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은 카리스마를 가진 신자자적인 분이였으며, 바울은 회람 말을 쓰는 지성적이며 전통적인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다. 이 두 사람은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동시에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했나?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은 생전에 서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때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다. 그것도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할 때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후 바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추종자(Faithful follower)였다(롬 1:1).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모셨고, 바울의 삶 자체도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근거를 둔 삶이었다(골 1:13~17).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전 7:10, 9:14, 11:23; 롭 16:18, 10:7).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였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화술로 말씀하셨다. 반면 바울은 복잡한 논술로 표현하였다. 예수님은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지만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계를 맺었다(막 1:14~15).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들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을 언급하였다(롬 1:16~17). 또한 바울은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고전 6:19). 그리고 이방 전도에도 모든 정력을 쏟았으며,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이었다(갈 3:1~2). 즉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활과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믿음을 새롭게 정리시킨 사역으로 보아야 한다(빌 1:19~21).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같다(히 12:1~2). 두 사람은 시대와 문화와 정치와 환경 조건이 전혀 달랐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그리스도는 부활을 암시하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시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천하에 공개하게 드러내어 가르쳤다. 그러나 사실상 같은 부활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이 같은 복음임을 알아야 한다.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중요하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신실함에서 그의 신앙을 찾을 수 있다(갈 6:14~17). 그는 기독교를 복잡하게 이끈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을 강하게 외친 자이다(롬 4:23~25). 그 믿음은 골고다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어 인간에게 오신 것을 확인하는 이 특별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한다(마 1:1, 16, 23). 이는 역사 속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여 준 소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눅 2:11~14).

기독교는 어떤 신화나 철학 유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한 역사적 계시이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관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과는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문화와 사상과 전통으로 얼마나 많이 변질 되었는가! 복음이 역사에 비춘 실존적인 서광을 가슴에 안아야 한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져야 한다. 그는 역사에 개입하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으며 어느 날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분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이다(고전 15:16~19). 바울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전한 일꾼이었다. 성경이 지닌 통일성, 다양성, 영감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 중에는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유전과 바울의 서신 사이에 기본적인 통일성이 있다. 아멘.



믿음의 결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계속된 무더위와 갑작스런 폭우로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가을의 햇빛은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하게 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막 4:29).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영적 결실을 위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마 16:24). 영적 결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히 12:2).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골 1:6)를 맺게 하십니다.

특히 10월에는 교회의 중요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교회 일꾼 인사(10.13)를 시작으로 장로피택자 주계발표(10.15)와 임직예배(10.20) 그리고 2010년의 마지막 청지기훈연(10.22)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시고 매일 새벽기도회는 물론 수요일예배, 청지기훈연 및 크리스마스 찬양을 준비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금요찬양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골 3:16). 예수님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WHO IS THIS?

⁽³⁵⁾ *On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them,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³⁶⁾ *Leaving the crowd, they took Him along with them in the boat, just as He was; and other boats were with Him. ... ⁽⁴⁰⁾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⁴¹⁾ *They became very much afraid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Mark 4:35~41)

After a long day of preaching in a boat to a very large crowd on land, Jesus instructed His disciples to sail Him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He had spent the entire day teaching in parables about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As such, He was physically exhausted because of His humanity, and fell asleep on a cushion in the back of the boat as soon as it set sail. In the midst of their evening journey, "there arose a fierce gale of wind, and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much that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up" (Mk. 4:37). The storm was serious enough to scare Jesus' disciples into waking Him up. Jesus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Hush, be still." And the wind died down and it became perfectly calm (Mk. 4:39). Jesus then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Mk. 4:40). After a full day of teaching the crowd along with them, His disciples still didn't comprehend who He was. They started talking amongst themselves,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Mk. 4:41). They knew that He was greater than they had originally thought. Let's look more closely at this whole stormy event.

Why did the storm arise? Like Jesus, the disciples were also tired and desired to get away from the crowd. They quickly and obediently listened to Him when He said it was time to move on. They followed His instructions. They were living within His law, so why then all the trouble? In the Christian life, hard times come not always as a consequence of our sins, but also because of our obedience. In other words, real Christians who obey Jesus will face tribulations, but these tribulations produce glory rather than shame, "and if children, heirs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so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 (Rom. 8:17). Jesus also faced the same storm as His disciple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Heb. 4:15). Difficult times in this life are inevitable, but if we follow Jesus they will always generate glory.

Who knew about the storm? The Sea of Galilee is surrounded by hills and valleys, and violent storms often occurred because the valleys descending to the sea acted like wind tunnels. If the disciples, many of whom were fishermen, had known that the Sea of Galilee was going to be so rough they would have waited. They departed in the calm of evening thinking all was well. To them the storm was unexpected. When the storm hit, they woke Jesus up and said to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Mk. 4:38). Do you think Jesus doesn't care about you

when you think you are perishing? The disciple's question was asked outside the realm of faith. We should know that Jesus' greatest demonstration of power occurs when He delays intervening. Remember the story of Lazarus. Jesus knew His dear friend was ill, and could have easily healed him, but He waited until he died to perform an even greater miracle. He told His disciples, "Lazarus is dead, and I am glad for your sakes that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but let us go to him" (Jn. 11:14~15). Jesus purposefully left the safe shores for the rocky waves, so that His disciples could witness His complete power over nature. You and I must have total faith! Don't analyze, discuss, and contemplate the storms of life. Just trust Jesus! All Christians proclaim that Jesus can handle the storms of life, but when the storms come they fall apart. They start blaming Jesus for their troubles. They start questioning His intentions. They get angry with Him because He didn't act sooner. If you want peace in the midst of turmoil, then just trust Jesus completely. He knows about the storm.

What should you do in a storm? With faith, let Jesus demonstrate His deity. Make no mistake that the storm stops in response to Jesus immediately. After Jesus calmed the waves for His disciples, after they got a glimpse of His almighty power, they still questioned Him, "They became very much afraid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Mk. 4:41). Instead of being thankful and having assurance, they held on to their own way of thinking. This is the same problem with most of today's Christians. We constantly question our Lord in a derogatory manner. Our questions and remarks aren't meant to glorify Him! Jesus is our Master. He is a worthy Master who loves us more than our little minds can even imagine. All we have to do is trust Him.

My dear friends, perhaps the disciples understood Jesus a little more after the storm, but they still did not rely totally on Him. He is the Master! He is the Master of all storms. He is the master of all the world. He created this world with His wor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4). Please concentrate on Jesus Christ alone with total faith.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Deity dwells in bodily form, and in Him you have been made complete, and He is the head over all rule and authority" (Col. 2:9~10). I want to challenge you to live this life with faith in Jesus Christ alone. Who is Jesus Christ to you? Is He really your Master? If so, then totally believe in the Son of God by denying yourself,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Him. Amen. ㄴ

그는 누구인가?

⁽³⁵⁾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³⁶⁾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

⁽⁴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⁴¹⁾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35~41)



김성관 목사

하루 종일 배에 올라 앉아 물에 있는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온종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주님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배가 출발하자마자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누워 곧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막 4:37). 폭풍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흔들며 깨울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막 4:39).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 4:40). 하루 종일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막 4:41).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풍이 일어났던 그 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광풍이 일어났는가

왜 광풍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처럼 제자들 역시 지쳐 있었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재빠르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시련의 시간들은 우리의 죄에 따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수치가 아닌 영광을 안겨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폭풍을 만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경의 시간들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역경들은 언제나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누가 그 광풍을 일으켰는가

누가 그 광풍에 대해 알았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언덕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계곡들이 바다로 이어지면서 바람의 터널 역할을 하게 되어 격심한 풍량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심한 풍량이 일어날 것을 알았지만 출발을 늦추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생각하여 요요한 밤중에 출발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광풍은 예기치 않은 일이었습니. 광풍이 불아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이까”(막 4:38). 여러분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지

체하고 계시 때 주님의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을 알고 있었고 쉽게 그를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요 11:14~15).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전한 바닷가를 떠나 풍량이 이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분석하거나 토론하지 말고 인생의 폭풍을 잡잡히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광풍들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찾아올 때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역경들로 인해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더 일찍 대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께 분노합니다. 그러나 혼돈의 순간에 평안을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광풍에 대해 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시다(기름 부으신 자이시다)

광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광풍이 즉시 멈출 때, 실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풍랑을 잠재게 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보여 주신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막 4:41). 감사하며 확신을 갖는 대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경스러운 태도로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말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면 제자들은 광풍 후에 예수님에 대해 좀더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광풍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찬양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찬미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골 2:9~10). 이 땅을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진정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47

시험을 앞에
놓으신 예수님

가혹하였다.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눅 22:40).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밝히신 것처럼 이제 곧 자신이 당할 십자가 형벌을 잘 알고 계셨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눅 9:22,44).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기에 이제 곧 자신이 당할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보다 제자들을 더 걱정하셨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낙망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항상 주시하신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눅 7:13).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열려하고 근심하나”(눅 10:41).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신다(눅 13:11~12).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낮은 자, 우는 자,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돌아보신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였다. “너희에게는 심심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눅 12:7).

시험을 앞에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는 예수님 자신의 문제보다는 제자

들이 당한 시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기록하였는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장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눅 12:11)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놓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다(눅 23:27,48).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고초스럽게 하는 고난의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올 영광스러운 승리에 그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고 평안히 십자가 길로 가셨던 것이다. 바로 이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였다.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앞에 놓고도 요동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한다. 그것은 역설의 진리다. 기독교는 합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그 무엇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반드시 충돌과 문제가 생긴다(막 8:32). 그러나 기독교가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전해 해 혼란스러움은 모두 사라지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진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던 바울에게 경건한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테니 가지 말라며 그를 막았다(행 20:22~23). 이것은 지금껏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였다. 그러나 바울은 합리적인 것보다 역설을 택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행 20:36~37).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눅 11:1~4)를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던 갯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눅 22:40,46)을 꼭 마음에 새기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시)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크리스마스의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 한다
(누가복음 1:68-79)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관심이 없다. 유대인들의 모든 예배와 삶의 중심이 메시아에게 있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미 5:2)의 말씀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지만, 예언이 성취된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조차도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없었다. 믿음은 매순간 살아 움직였지만 정작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말씀과 관계없이 행동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탐욕스런 신앙으로 가득하지 않는가? 크리스마스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요 14:3). 천사들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행 1:10~11; 살전 4:13~18). 왜 크리스마스의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 그의 사역을 열방에서 완성시켜야 한다 주님의 사역을 열방에서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유대에게서 나야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었다(시 22:14,16,18~19).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사 53:12 ; 시 16:10~11). 이 모든 사역은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의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공휼히 여기시며 그 기록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눅 1:70~74).

● 그의 권한과 성취를 자연에서 세우셔야 한다 크리스마스의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의 권한을 자연에서 성취하실 것이다. 자연은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기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기도 하셨다(막 4:39 ; 요 6:19).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돌들도 순복하였으며(눅 19:3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연은 탄식하였다(마 27:45,51).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향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사 35:1~2).

● 새신자들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로로 인함이라 이로써 모든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니라”(눅 1:78~79). 크리스마스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는 완전해질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평행하며 영원한 빛이 모든 성도를 새신자 되게 할 것이다(고후 5:17). 새신자가 된 성도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고전 6:19).

크리스마스의 주님을 맛을 즐기며 되어 있는가?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나의 것을 버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말이다. 지금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세상안으로 돌이켜, 다시 오실 크리스마스의 주님께 맞추자. 크리스마스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은 분별해진다(요일 3:2). 그날에 열방, 자연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오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

우리 선교 85년 12명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캄보디아의 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가 넘치도록 받고 돌아왔다.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모습이 떠나질 않는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고, 6시 10분에 아침 체조를, 7시에 경건회를, 8시 30분에 습합차에 올라 그날 그날 인도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아직 한 번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늘 인도하셨고, 그 곳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특별히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 소아마비, 중풍병자, 눈 먼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기쁨을 주셨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담겨져 있고 굳어져 있던, 경계했던 마음들이 열려 눈물을 보이고 열정 기도하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 아직도 글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도 그들의 환경은 열악하였다. 힘들 때마다 양 화전에 붙여 있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다. 사역 첫째 날은 우리의 언어의 어눌함과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둘째 날부터는 서로 증거의 중언이 되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오로지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셨는데, 주일예배는 그야말로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총현교회의 작은 교회가 거기 있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

만나지에서 이르러 9월 7일(화), 우리가 방문한 동네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다. 피아노 반주와 찬양이 하나가 되어 온 동네가 춤을 추며, 천군 천사와 함께 한 우리들은 그 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날이었다.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점심 먹고 쉬는 시간까지도 영혼들은 우리에게 몰려왔고, 하나님은 잠시 쉬는 시간까지도 온전히 우리를 급박하게 사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 살아 주셔서 그 넓은 사랑, 큰 은혜를 힘써 전파하게 하사 큰 기쁨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윤경희(사도, 1교구)



그들의 손을 잡고

30년 가까이 종교 문제로 내전을 치루었고 이제 그 내전이 끝난 나라. 선교지를 정하고 그 곳의 사정을 조사하면서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으로 억울하게 다친 많은 영혼이 자꾸만 맘 속에 뿔뿔었다. 그러나 현지에도 도착하여 사역 중에 만난 젊은이들에게서 이 곳의 미래를 보았다. 주님을 열접하는 기도를 정성스레 따라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어눌한 언어를 끝까지 경청하면서요 열접기도는 정중히 거절하는 젊은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그들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나를 이 곳에 보내신 주님, 이 곳 젊은이들의 눈리로 예수님을 열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 계심을 또 주님이 이런 이들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때가 되면 도구로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국 식민지 영향 때문인지 예의가 바르고 자신의 주장이 분명한 이 곳 학생들을 보면 인젠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는 날,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임에도 팀원 모두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그 동안 너무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갇혀 있었던 내가 부끄러웠다. ‘자기부인’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곳에는 한국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근로자로 일했던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국말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팀의 권사님을 교회에서 봤더니 반가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겨졌고, 더불어 외선부의 소중함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총현교회에 다녔지만 이 곳에서는 다시 복음을 믿는다는 전례를 보며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전해져 이 곳에서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를 드릴 뿐이다.

현웅속(침사, 23교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매달렸을 때

내 생각과 계획들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그 곳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거의 없었다. 현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갔다. 이 곳은 기독교인이 5%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났던 영혼을 위해 기도는 하였지만 많은 격정을 하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교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적으로 피폐하였다.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만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셨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팔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주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나아가게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비록 생각에는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주님으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었다. 또한 믿지 않는 영혼에게서는 우리의 어눌한 언어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특히 자신의 신을 믿고 있던 사람이 주님에게로 들어오는 기적의 순간은 주님이 아니어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예전에는 많은 영혼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는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을 열접하기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이들도 이번 선교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은 가장 선행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선교였다.

김윤정(대학부)

죽을 때까지 선교사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우리에선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며 너무도 은혜로운 권면의 말씀이다. 하지만 스테판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거하다 순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순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았고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참으로 그들의 심령을 뒤흔드는 진리임을 알게 하고 보게 하였다.

어떤 마을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 지 20분도 안 되어 그 지역에는 비성사태가 선포되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우리 조는 일찍 습합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이미 40여 명이 이상이 차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이 손으로 차를 치고 정도와 지도책을 빼앗는 북새통 속에서 우리는 차를 타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왔다. 4km 이상을 사냥총을 차에 싣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쫓기느라 다른 2개 조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다. 이후 습합차 기사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몇 시간 뒤에야 팀 전원이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했다.

‘617’, 이것은 우리 팀원 모두의 나이를 합한 숫자이다. 오랫동안 선교를 소망하였으나 수술이나 지병 등으로 육체의 나약함을 가진 우리 팀은 유난히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였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늘 훈련을 통하여 고백하였다. 영적으로 취약한 우리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불쌍한 영혼들을 발견해 하시고, 그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양드릴 수 있었다. 우리 팀원 모두는 함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죽을 때까지 선교사다.” 함께 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교를 감당하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에 무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 드린다.

신현철(전수집사, 10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6일(수) - 10월 14일(목)	2교구 3팀	박종철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8일(화) - 10월 6일(수)	14교구 4팀	김순환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Yes, U 전도집회(청년부)

자기 부인과 내어드림

이것은 우리에게 보인 살아 계신 아버지의 표적이었다.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여 그들을 이룩한 적도 없다. 그러나 임의성을 가득 메운 한 사람 한 사람, 이는 결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 안녕하세요? 교회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한 정인이라는 예전 회사 동료였구요.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항상 믿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출석의 권유는 늘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인이가 아침마다 말씀문을 보내줘서 말씀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었구요. 사실 요즘 정신적 고초가 있어 신앙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등산을 통해 철학적인 대답을 찾아왔어요.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러봐서 사실 아직까진 어색합니다. 그러나 찬양과 말씀을 통해 편지 모를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의 생애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새가족)

• '전도집회가 있으니 언니를 이날 꼭 데려와야지'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하나님께를 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언니와 우연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잠시 예수님을 소개한 것뿐인데... 언니는 어렸을 때 부처를 믿어서 아직까진 많은 것들이 어렵고 낯설 것입니다. 주말예배와 새가족양육부도 인도하여 천천히 함께 알아가고자 하니 소망합니다. 언니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인도자)



노방전도 중인 청년들

'전도' 그것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부족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장 꺼려지는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매년 청년부에서는 'Yes, U' (전도집회)를 준비하며 2~3주 전부터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매년 참여는 했지만 그저 낯설고 속스러워 전도지 한 장을 슬며시 전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올해도 9월 11일에 열리는 Yes, U 전도집회를 앞두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전도한 곳은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버스를 타는 정류장이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속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가 수월하게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때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비 오는 데 좁은 길 막고 뭐하는 거냐는 아저씨,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물었을 때 마치 못 들은 것들 같은 듯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던 자매, 또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님은 형제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소리에 머쓱해하던 형제. 수확은 커녕 수모만 당한 한 주가 그렇게 지나 또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들로 낙심하기보다는 더 확고한 믿음이 생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가세요!"라며 외치는 담대함까지 생겼습니다.

노방전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부인과 내어드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정작 무한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왜 잘 모르고 살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는 왜 내 안에 깨어지는 부분을 쫓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전도' 여전히 연약하여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을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신 감사했습니다. 김현정(청년부)

취재·이은정 기자

•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부터 교회와 저절로 멀어지고 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주일에 동네 교회에 간간히 참석하고 있었구요. 이 사실을 아는 제 친구 세명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를 통해 함께 위로받길 권하더군요. 공동체 생활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지라 지루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친 마음을 이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집회를 통해서 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서로가 한 주의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면 이 곳은 참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을 통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미 택하셨으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

는, 영원히 함께하시길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남정민(새가족)

• 총동원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청년부에서 속하여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입부를 거쳐 이렇게 일반팀에 속하기까지 나눌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아왔기에 친구에게도 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주말에도 우리 교회에 참석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처음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부도 제친한 은혜가 되었는데, 친구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으니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세영(인도자)



이세영(인도자)

고등부 총동원 전도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위해 그 동안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다들 기도로 준비하였다. 각 소그룹들은 성극, 풍토, 찬양 등을 준비하면서 총동원 전도주일을 맞았다. 마침내 당일이 되었고, 고등부에는 예배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예배가 끝난 뒤 성극부에서 준비한 전도 성극, 그리고 예쁜 찬양대의 '예수께로 가련', 전도하는 모습을 담아낸 고등부 학생회의 풍토, 그리고 새 친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에 나온 새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복음을 사모하는,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해야겠다.

• 함께 온 친구는 중학교 때 알게 된 친구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 데려 오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친구여서 그런지 교회로 다시 데려 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솔직히 좀 주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2주 전쯤 친구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 가지는 그 한 마디에 친구가 너무나도 쉽게 승낙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친구가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백수희(인도자)

•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엔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고, 모르는 교회에 설بری 나가기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이가 저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을 했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보다는 가는 방법이 쉬워서 한번 나가 보자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이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내용이 좋아서 계속 나오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한수정(새친구)

취재·김성혜 기자

예수님 안에서

추석을

추석연휴 때에는 학교와 학원이 모두
 쉬어서 신난다. 추석날에는 우리친척들
 이 할머니가 계신 외삼촌집에 모여 예배
 를 드린다. 한승도 부르고, <주간
 충천>에 있는 '무엇을 감사하
 가?'에 대한 말살도 돌아가며 읽

었다.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
 사드린다. 우리 집은 이렇게 예배를 드
 리지만 나의 친구들 중에는 돌아가신 조
 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어이없고 안
 타당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

리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전도를 위해 기도할 더 열심질 해야겠다. 우
 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말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어서 감
 사하다. 아침, 추석날 먹는 송편은 정말 맛있었다!

변혜준(초등2부)

이제까지 우리 가족은 명절이 되면 어느 집과 다
 를 것 없이 시골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은
 보냈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우리 부모님이 목회
 를 하셔서 집에서 보내야 했다. 예전처럼 가족들이
 하나로 모여 즐거운 추석을 보내지 못한다고 생각
 하니 조금은 서운했다. 우리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목회방침
 이 노숙자 사역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성도 몇 분과 시골에 내려가
 지 못하신 노숙자 분들과 함께 보내야 했다. 추석 아침, 서로 기도하
 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이야기도 했다. 각자 시골에 가
 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한 가족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사실 속으로 부모님이 신앙을 하시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어
 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몰랐고 여
 러 시일이 올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힘든
 내색 한 번 안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더욱 분과 시골에 내려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올부짓을 수밖
 에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나니 그 시함과 어려움은 나에게 더
 옥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었고, 주님은 그 시함들을 통해 나를 더욱 성
 속하게 변화시켜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사랑이고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추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
 에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차고 기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박푸름(고등부)

써어질 것들을 버리고

저는 유교와 불교문화가 적절하게 복합되어 있는 경성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어린 시절
 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주위 친척들 모두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
 터 많은 친척들 모임에서 항상 그분들의 사업확장과 돈을 버는 데 몰두하시는 말씀들을 들
 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돈이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얻는 공명에 비하면
 할 수 낮은 처세법이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오직
 공부부를 통해 입신양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결혼 생활에 큰 지각변동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제 삶의 뜻대가 되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 속에 자
 리 잡는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도 항상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완고한 성품으로 인해 여전히 저의 자
 아는 깨어지지 않았고, 성령께서 여러모로 가르치셔서 깨달아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는
 '옛 사람'의 '죽으면 써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는 갈급해졌지만 이웃들을 향해서는 완고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2대 사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는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저를 충천교회에 인
 도하셨습니다. 충천교회에 출석한 이후 저는
 지금 새가족양육부에서 그 동안 제 나름대로
 알아왔던 성경적 지식을 뒤로 하고 양육부의
 가르침을 받으며, <충현의 만나>를 이용하여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
 지만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구
 절들이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다지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혜(성도 새가족양육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086	김유은	대학부	22	김다은	1111	박민수	양육반	5	
1087	박수현	적응반	15	최우근	1112	김광희	통신반	13	최현구
1088	안창훈	양육반	15	왕김수	1113	강현아	적응반	1	
1089	이정아	양육반	7	이은양	1114	홍유리	고등부	8	김영아
1090	박귀리	초등2부	2	엄정수	1115	김혜진	적응반	19	정경미
1091	이영길	통신반	19	이수길	1116	정채원	통신반	3	
1092	이동호	초등1부	14	김정혜	1117	한인서	유아부	3	
1093	구홍순	초등1부	2	권진숙	1118	배동국	양육반	16	한만교
1094	최은경	대학부	22	우수영	1119	윤정선	양육반	16	한만교
1095	홍태근	사망부	25	최상기	1120	최의진	고등부	1	홍현기
1096	김나순	적응반	13	권현수	1121	유순산	적응반	11	함미자
1097	이태준	사망부	25	김희영	1122	구기보		2	홍정훈
1098	나효진	양육반	17	김민희	1123	구홍인	유아부	2	홍정훈
1099	송준규	사망부	25	정혜진	1124	최지은	통신반	23	서진원
1100	홍효진	적응반	22	정희운	1125	김두현	통신반	1	박미중
1101	성영호	통신반	14	홍예자	1126	김지우	적응반	1	김근아
1102	이재영	대학부	17	이창혜	1127	이성용	적응반	20	
1103	임남주	적응반	2		1128	이선애	통신반	11	노준복
1104	김영진	통신반	10		1129	정순진	양육반	23	변인식
1105	전현진	청년1부	22		1130	지덕희	예배다부	25	박인기
1106	박신현	통신반	22		1131	김기훈	사망부	10	
1107	정여분	영아부	17		1132	정미리		21	
1108	김하람	영아부	17		1133	김윤희	유아부	17	김정현
1109	조세화	영아부	17		1134	이재희	적응반	24	
1110	안준현	영아부	17						

